

노인의 성생활 경험에 대한 서술적 연구

오진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목 차

I. 서론	V. 결론 및 제언
II. 문헌고찰	참고문헌
III. 연구방법	영문초록
IV. 연구결과 및 논의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일반인들은 정상 노인에서는 성 욕망이나 성행위가 중지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생각은 성적 욕망을 노출하는 노인을 비도덕적으로 간주하게끔 한다 (송미순, 김신미, 오진주, 1997; Brown, 1989; Kaas, 1981; Wasow, Loeb, 1979). 성은 생식을 위해 존재한다는 전통적인 사고는 생식능력이 없는 노인의 성은 불필요한 것으로 취급하는 일반적 편견과 태도를 형성하는 가장 근본을 이루어왔다. 실제로 노화에 따른 생리적 영향으로 성활동의 빈도는 감소될 수도 있으나 반드시 그러하지는 않다(Newman and Nichols, 1960; Pfeiffer, Verwoerd and Wang, 1968; Verwoerd, Pfeiffer, Wang, 1969). 연구들은 노인들이 성적 욕구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성행위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Freeman, 1961). Pfeiffer 등의 연구(1968)는 노화에 따른

성적활동의 빈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는 아니었음을 보였다. 결혼상태에 있는 노인남성의 70%가 규칙적인 성교활동을 한다는 보고도 있다 (Weinberg, 1982). 즉 노인들은 성에 대한 관심 및 성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Kinsey, Pomeroy, Martin, 1948; Masters and Johnson, 1966, 1970; Verwoerd et al., 1968; Nay, 1992)

사람의 성적욕구는 대뇌에서의 기억, 연상, 정서, 경험 등이 관여하므로 노인들의 성적활동은 연령에 따른 생리적 기능의 쇠퇴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환경, 주변인의 태도, 건강상태 등에 의해 더 잘 설명된다는 것이 제시되고 있다 (Pfeiffer et al., 1968). 즉 노인의 성적욕구와 활동은 지속되거나 심리적-사회적인 요인에 의해 좌절을 겪는다는 것이다. 사실상 성적관계는 신체적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희영, 1983, Weinberg, 1982, Butler and Lewis, 1973).

그러나 노년기의 육체적 변화는 성 활동을 할

본 연구는 단국대학교 대학연구 지원비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수 없게 되었다는 오해를 야기하고, 따라서 성적활동이 육체적 노화과정에 따라 적응되어 표출되기 보다는 완전히 폐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행히 노인에 대한 건강관련 최근의 저술들은 생활의 질과 건강의 관점에서 성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어(Finkel, 1972; Selickman, 1971)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나라 노인들의 성에 대한 태도나, 성생활에 대한 기초적 탐색은 노인들의 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앞으로 노인의 성에 대한 중재방법을 개발하는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연구라고 보여진다.

2. 용어정의

본 연구는 노인의 성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파악이 앞으로의 노인의 성 관련 연구나 중재방법 개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하에 노인들의 성생활 경험에 대해 탐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노인들에서 성생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성적욕구 정도 및 성생활 변화의 요인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구체적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에서의 성생활은 어떤 중요성을 가진 것인가?
2. 노인은 성적욕구를 가지고 있는가?
3. 노인의 성생활의 변화 요인은 무엇인가?
4. 노인들은 그러한 변화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성상담에 대한 요구도는 어느 정도인가?

II. 문헌고찰

1. 노인의 성적활동의 필요성 및 정도

성적 호기심은 출생에서 부터 사망까지 지속된다. 성능력이 불가능해지는 나이는 없다고 보인다. Comfort(1974)는 성적기능이 인간의 어떠한 다른

기능보다도 오래 지속되는 기능이며 일정한 건강을 유지시에 그 욕구와 능력은 평생 지속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사람의 성욕은 성선인 고환이나 난소의 기능에서 유래하는 것도 많지만 대뇌에서의 기억, 연상, 정서, 경험 등이 관여하는 바도 크다. 이와 같이 놀라울 정도로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성생식 기관은 결코 완전히 쇠퇴되어 버리지는 않는다. 따라서 어느 나이까지 성능력이 지속되는가는 정확히 말하기가 어렵다. 사람의 몸이 성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신체적으로 장애를 갖고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성생활에 연령제한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노인에서의 성생활은 생리적 측면에서도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생활 억제될 경우 성기나 부성기의 폐용성 위축을 초래할 수도 있다(이희영, 1983).

Weinberg(1982)는 성적요구가 충족이 안될 경우 노인의 퇴행이 촉진되며, Butler and Lewis(1973)는 노인의 성행위는 치료적인 것으로, 아드레날 gland에서의 코티존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관절염치료를 돕고, 심리적 긴장감의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

2. 노인의 활동

Freeman(1961)은 평균 연령 71세의 한 연구에서 90%가 만족스러운 성경험을 했으며, 75%가 지속적인 성욕을 가지고있다는 것 또한 60%가 성적능력이 있음을 을 보였다. 254명의 지역사회 거주노인(평균연령; 70.9세 131명 여성, 124명 남성)을 대상으로 9년간의 걸쳐 이루어진 Pfeiffer 등(1968)의 연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교횟수는 감소하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는 아니었음을 보였다. 연구결과 60-71세의 대상자 중 40-65%가 상당히 빈번하게 성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직접적인 성교횟수는 감소할 지라도, 성적 관심은 오히려 나이와 역상관관계를 보인다는 매우 흥미있는 결과도 제시되었다. 즉 일년간의 추적조사 결과 성적활동(13%)과 관심(15%)은 증가추세를 보였다. 여성의 경우, 거의 모든 경우에서 성교를 중지한 이유는 남성상대자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Verwoerd et al.(1968) 에서도 역시 건강한 부부는 70대에서도 70-80%의 성적으로 활발함을 보였으며 일부는 80과 90대에서도 활동성을 유지하였다. Weinberg(1969)는 65세이상 노인 8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결혼한 남성의 70%가 성교에 규칙적으로 활동하며, 75-92세에서는 거의 50%가 성교가 아직도 만족스럽다는 응답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여러 연구들은 많은 노인들이 비록 항상 활동적이지는 않더라도 성에 대한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고 성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보인다(Kinsey et al., 1948; Masters and Johnson, 1966, 1970).

3. 노화관련 성의 변화 및 관련요인

노화에 따라 성활동의 빈도가 감소될 수는 있으나 반드시 그러하지는 않는다(Newman and Nichols, 1960; Verwoerd et al., 1969; Pfeiffer et al., 1968). 오히려 성활동의 종식은 오히려 연령보다는 다른 사회적 환경, 주변인의 태도, 건강상태 등에 의해 더 잘 설명된다는 것이 제시되고 있다. Calderone(1976) 역시 성활동의 감소 원인은 성에 대한 공포, 무관심, 잘못된 죄책감 등의 악순환 때문임을 지적하였다. 종교적 태도 역시 노인의 성에 대한 견해에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종교는 성을 출산을 위한 행위로 국한시킨다. 자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종교적 신념은 노인이 무성적(asexual) 존재라는 생각을 강화시키며 사별한 노인의 성적요구 표출을 방해하게 된다. 그 외 파트너의 가용성과 기타 성적 표현을 방해하는 사회적 변수들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Dean(1974)은 성적활동을 경감시키는 상황은 생리적인 요소보다는 심리-사회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많은 노인들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성을 적극 표현하고 있으나, 다른 측면에서는 그러한 노인의 성적욕구와 활동이 심리적-사회적인 요인에 의해 좌절을 겪는 것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에서의 성생활의 중요성, 현재 성적 욕구 유무 및 그들이 경험한 성생활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노인의 성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더 나아가 노인의 성에 대한 중재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서술적 연구를 행하였다.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일 개 도시의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일반노인 2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대상자는 해당 지역의 경로당을 방문하여 본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동의한 노인에게 한하였다.

2. 연구도구

연구자가 작성한 비 구조적 질문지의 질문항목은 연구목적에서부터 만들어졌다. 즉 노인의 성생활에 대한 탐색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반적 사항과 성생활의 현재상황 및 변화여부 등에 대해서 구성되었다. 본 질문지에서 사용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2) 당신에게 있어 부부생활은 (성생활)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3) 현재 성적 욕구를 느끼십니까?
- 4) 성생활에 변화가 있다면 변화 요인은 무엇입니까?
- 5) 변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2) 노년기의 성생활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은 훈련된 3명의 연구요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자료수집자에 대해 연구목적 및 면담방법을 사전 준비시켰으며 자료수집기간은 1998년 4월부터 6월까지였다. 자료수집방법은 반

구조화된 설문 항목을 중심으로 하며 솔직한 진술을 얻기 위해 통제되지 않은 자연적인 상황에서 면담을 통해 수집하였다. 참여자들에게는 연구목적, 비밀보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솔직하게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면담과정에서는 이 후의 자료분석을 위하여 상대방 허락 하에 현장노트를 이용하여 면담내용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비 구조적 설문지 26부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대상자가 표현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 문항별로 서술적 연구방법의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서술적 연구방법의 자료분석은 관련현상에 대하여 대상자가 진술한 중요주제를 찾는 것이며, 분석-종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분석-종합의 과정은 대상자가 서술한 것에서 중요 구성요소에 따라 주제를 분리하여, 이러한 구성요소를 검토하고 대상자의 생생했던 현상을 통합하여 서술하는 것이다. 다음에는 그 주제를 대상자의 언어에서 연구자의 언어로 옮겨 더 높은 수준으로 변형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나온 주제는 종합되고 가설적 진술로 변형된다 (Parse, Coyne & Smith, 1985). 의미있는 진술을 추출함에 있어 의미가 똑같이 반복되는 것은 제외하였으나 유사하지만 대상자가 다르게 표현한 것은 그대로 사용하여 대상자의 경험을 그대로 나타내었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연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는 남자 16명 여자 9명이며 연령은 65-69세가 4명, 70-74세 12명, 75-79명 7명, 80세이상 3명으로 평균연령은 73.3세였다. 경제수준은 상(2명), 중(22명), 하(2명)이며, 학력은 무학이 9명, 국졸 6명, 중졸 8명, 고졸이상 3명이었다.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는 19명, 사별은 7명이

며 자신이 인지한 건강상태는 매우좋다 5명, 좋은편이 13명, 나쁘다는 8명이었다. 배우자 건강은 상(5명), 중(7명), 하(7명)이었다.

2. 노인의 부부생활 (성생활)의 중요성

노인들에서 성생활이 어떤 의미를 갖는 지에 대한 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의미 있는 진술은 총 60개였으며 관련된 주제군은 의무감, 친밀감, 욕구의 강조, 의미의 감소, 중요성 없음의 5개 군으로 범주화되었다.

1) 의무감의 강조

의무감으로 생각하는 노인은 성생활을 부부의 원칙으로서 상대방이 원하면 할 수 없이 해야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었다. 즉, 노인들은 '영감이 자자하면 자는' 경우로 '그냥 살 맞대고 사는 거지 사랑이 별건가?' 라고 표현하고 있다.

2) 친밀감의 강조

성생활을 친밀감의 수단으로 보는 경우는 나이가 들면서 부부관계가 소중함을 인식하고, 그러한 관계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성생활이 중요하다고 본다. 즉 '이 나이 되면 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 동안 몸 비비고 살던 마누라뿐이니까' 소중한 관계를 더 의미있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성생활을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별한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앞으로 좋은 할아버지를 만난다고 해도 성적욕구 때문에 만나는 것보다는 서로 남은 인생 기대 사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젊었을 때 욕구만으로도 성생활을 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사랑 없이는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노인이 되면서 처음에는 몰랐던 사랑을 발견하고 지금은 서로를 아끼게 되고, 지금까지 같이 살아준 상대방이 고맙게 느껴지는 것이다.

3) 기본적 욕구

나이가 들어도 성생활이란 기본적인 욕구이고 본능으로서 삶의 즐거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안 된다면 살아가는 의미가 감소되고, 삶의 의욕이 감소되는 것이다. 성생활을 기본적 욕구로서 강조하는 노인들은 '늙었지만 아직은 우리도 남자고, 여자임'을

<표 1> 노인에서의 성생활의 중요성

범 주	의미있는 진술
의무감의 강조	결혼해서 잠자리는 부부의 원칙이야; 때론 잠자리 하는게 싫을 때도 있어. 그러나 상대방이 원하면 할 수 없어; 부부의 연을 맺으면 어쩔 수 없어; 할아버지 실망 안 시킬려면; 부부가 결혼을 하면 같이 자고, 그러면서 사는거지; 나는 영감하고 살면서 영감이 자자하면 자고 그랬지 뭐; 그냥 살 맞대고 사는거지 사랑이 별건가?; 그렇게 사는거지; 부부생활이 원만해야지 큰 문제없이 지낼수 있어; 나이 들으니가 마누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돼. 그래서 마누라한테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 것도 있지; 남자는 그걸 잘해야지. 안그러면 여자가 딴 맘이 생기는 거여; 그것만 잘 이루어지면 다른 문제는 없는거지; 부부생활도 다들 하니까 하는 거고, 의무감으로 했지; 내가 좋아서 하고 그러지는 않지.
친밀감의 강조	이 나이 되면 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 동안 몸 비비고 살던 마누라 뿐이니까; 날 생각해 주는 사람도 마누라고; 즐거움 보다는 그냥 이젠 자식들 다 떠나보내고 돌을 엮어주는 구실 같은 거 같기도 해; 육체적 관계가 있어야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직접 표현되어야 부부간 사랑이 더 깊어질 것 같은디; 앞으로 좋은 할아버지를 만난다고 해도, 어디 그런 것 때문에 만나겠어? 서로 남은 인생 기대 사는거지; 부부생활도 사랑없이는 못하는 거야. 젊었을때는 욕구만으로도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않은 않아. 그냥 욕구도 있기는 하지만 사랑하니까 하는거여; 둘이 사랑하니까 사랑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지; 처음엔 사랑이란 것도 몰랐어. 그냥 하는거지. 그러다가 지금은 알지. 할머니를 아끼지. 지금까지 같이 살아왔잖아; 나이가 들으니가 마누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돼. 젊어서는 몰랐는데, 그래서 하기도 하지
기본적 욕구	남자는 여자가 꼭 필요한게야; 성 관계가 저기하면 살맛도 없게되고 의욕도 없고 그래; 나이 먹고 그러면 좀 줄어. 그래도 할 건 다 해; 애 낳는데 필요하고 남편 즐겁게 해준다지만 사실 그거 다 고깃말이야; 정말 중요한 거지. 나 혼자만 좋을려고 그런게 아니라 서로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지; 살아있다는 게 뭐야. 그런 게 없다면 그게 어디 살아가는 거겠어? ; 마누라 죽은 다음에도 가능하면 굳이 힘들게 참지 않아. 기본적인 욕구라고 생각하거든; 할 능력만 된다면 당연히 해야지. 자주는 못해도 할 수만 있다면 해야지; 늙어도 관계는 중요해; 늙어도 욕망은 있으니까 부부생활이 필요하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지. 우리 부부는 관심이 많아; 지금도 한달에 4-5번은 하지. 그런 건 본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능력만 된다면 가끔은 필요하지. 늙었지만 아직은 우리도 남자고, 여자니까 말이야; 가끔 나도 옛날 기분 내고 싶을 때가 있지; 늙어도 관계는 중요해. 그걸로 내가 얼마나 되나 하는 생각도 많이 해; 내가 50에 혼자였는데 처음엔 생각도 안 하려고 했어. 근데 잘 안되더라구. 기본적 욕구지;
의미의 감소;대체	지금이야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이 나이에는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아; 그런거에 매달려서 살 나이가 아니지; 그게 다는 아니지. 내 살아온 길에 만족하고; 지금도 마누라하고 노인정 가는 거 재미있고. 손자들 보는 재미도 솔솔있고 ; 그냥 자식들 보고 사는 게 낙이지. 그런 생활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제 손주 녀석들 보는 재미지, 그런거 별로 필요없지. 그게 뭐 그리 중요한가 ; 그냥 자식들 보고 사는 게 낙이지; 그저 건 강하고 마음이 통하고 지식들 잘 크고 하면 그만이지; 부부생활을 못하고 있어 조금 불만이지는 하지만 우리부부는 친분관계도 원만하디구; 매일 같이 이야기하고, 그저 친하게 지내면 되는 거지 부부생활을 못하고 있어도 친분관계가 원만하디구; 다 정으로 사는거지. 부부생활 안해도 남들 부러운거 없이 살지; 그런 것 보다는 이런 정 저런 정으로 들어서 오는 도슨 살아.
중요성 없음	이제 늙어서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요. 무슨 필요가 있겠나; 서로 늙었는데, 뭐 볼게 있누. 그냥 얼굴이나 보고 사는 거지; 이제 별로 필요 없지; 이제 나이 먹으니까 점점 멀어져 ; 늙으면 기운도 없고 귀찮아지지만 하지; 나는 싫어. 그런거야 다 한때지 뭐. 누가 이 나이에도 그런가?; 늙어가지고 몸도 말을 안듣는데 그런게 뭐가 필요있겠어; 열라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거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

주장한다. 또한 더 나아가 '늙어도 성생활은 중요하고 그걸로 자신이 얼마나 되나'하는 생각도 한다.

4) 의미의 감소; 대체

성생활이 없더라도 둘의 친분관계가 유지되므로 성생활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나 혹은 다른 인생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성생활에 부여하는 의미가 감소되는 즉 인생의 의미가 대체되는 경우가 포함되어있다. 즉 '부부생활을 못하고 있지만 우리부부는 친분관계도 원만하다'고 평가하거나, 이제 '성생활보다는 같이 이야기하고, 그저 친하게 지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다른 인생

의 의미가 강조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살아온 길에 만족하고 손자들 보는 재미나 자식들보고 사는 게 낙이지 그런 생활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5) 중요성 없음

성생활의 중요성을 전혀 부정하는 진술 역시 나타난다. 노인들은 '늙어서 몸도 말을 안듣고 그렇다고 열라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성생활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한다. 따라서 '성생활은 이제는 필요가 없으며 부부관계도 그냥 얼굴이나 보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표 2> 노인의 성적욕구

범주/주제	의미있는 진술
욕구의 완전소실	이제는 전혀 생각이 없어요; 지금은 아무 생각도 없어요. 뭘 봐도 아무 느낌도 없고; 이제는 웬만한 거 버서는 흥분은 안되지. 할망구들 보고 흥분하겠어? 아니면 젊은 아가씨들보고 흥분하겠어; 우리 마누라보고도 그런 생각이 잘 안드는 걸; 옛날에야 좋은 걸 보면 좋은 걸 알았지만 지금은 좋은 것도 몰라; 하고 싶은 생각이 싸악 없어졌어; 하여튼 생각자체가 안 난다니까; 아주 싫어. 그런 거는. 생각도 하기 싫어; 이젠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제는 그런거 없지; 그런 거 나는 잘 몰라. 별로 신경 쓰지도 않고. 그냥 있는 대로 사는 거지; 쉴 심 넘어면서는 모든 게 귀찮아 지더라구; 요즘은 다방같은데 가도 아가씨들 봐도 아무렇지도 않더라구; 이젠 그런 쪽에 흥미가 없어졌어; 텔레비에서 뽀뽀하고 그런 장면이 나와도 별 느낌도 없고 몸에 아무런 변화같은 것도 없어. 그런 가보다 해 버리지; 아예 그런 건 생각도 안하게 되었어. 생리 끝나기 전까지만 하고 싶은 욕이 있었는데; 영감이 없으니까 아예 포기하고 살아서 그런가 이젠 아무느낌도 없지;
욕구의 감소	옛날 일 생각하고. 그때 일 생각하면 가끔 몸이 반응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럴 때나; 생각도 그렇게 세지는 않아. 그렇게 간절하지가 않은 거지; 가끔씩은 하고 싶기도 하지만 못해서 못살진 않아; 아예 없지는 않지.; 자극적인 걸 봐도 발기가 전혀 안되.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적인 관심이 줄어들게 되지; 거이 그게 안되니까 예전보다 관심이 덜해; 그런 거 없지; 옛날보다 욕구가 줄어서 그런거지 몰라두 자극적인 걸 봤다구 해서 항상 발기가 되지도 않고; 지금은 확실히 달라졌어, 젊을 때야 너무 많아 수를 기억할 수 있겠어? 이젠 횟수가 적으니까 기억하고도 남지. 일 주일에 3-4회 정도 생각하지;
욕구의 지속	그럼. 나이를 먹어도 남자야; 비록 몸은 늙었지만 마음이야 어디 그래; 한 80세 전까지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애; 발기가 안된다고는 해도 남자는 성적욕망을 느낀다구. 예전처럼 강하게는 못 느껴도; 자주 생각하는 건 아녀. 늙어서 주책이라고 생각하지는 말어. 한달에 2-3번 정도는; 늙었다고 그런 생각 안 하는건 아녀. 다들 생각으로는 하고 싶다고; 그런 거는 평생되는 거지. 뭐. 실제로 못해서 그렇지 다들 하고 싶은 생각은 굴뚝 같을 거야. 생각만으로는 다들 죽을 때까지도 하고 싶을 걸?; 그거야 평생을 가는거지. 욕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남. 다들 욕구는 있지만 자체를 하구 하는 것이지; 늙었다고 욕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닝겨. 몸이 안 따라주니까 그게 문제지; 우리도 사람인데 말이지. 어쩔 수 없어. 나보다 더 일찍 보면 청상과부들이 혼자 살기 힘들지; 욕심이야 늘 있지만 ...; 일 주에 한번 정도 가끔은 생각을 하지. 많이 약해졌어; 노인들도 마음은 젊어. 욕구가 있지. 우린 늙어서 없을 거 같지?; 우리도 있어; 내가 건강이 아주 나빠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있는거 아니야?; 그런 거는 매일 생각하지. 나는 강한 편이지; 그런 건 평생가는거지. 건강이 아주 악화되지만 않는다면야; 아. 나도 남잔데 없겠어? 나이들어서 주책이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건강이 허락하기만 하면; 생각이야 뭐 일주에 몇 번은 하지. 그렇지만 생각만 하는 거지; 아직 마음은 똑같아. 좋은 것을 보면 흥분되고. 그건 매일 그래; 길 가다가 예쁜 여자를 보면 좋은 건 마찰가지지. 그런 아가씨들 보면 보기 좋지. 매력적인 젊은 여자와 허락만 된다면 얼마나 좋은가; 이젠 나한테는 젊은 아가씨는 안 어울리지. 뭐 생각이야 하는 것으로도 좋은 일이지; 4회 정도 성행위에 대한 생각을 한 것 같아. 일주일 동안.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다보면 하고 싶어지지; 지금이야 뭐 젊은 여자들 벗은 거 보거나 하면; 기력이 딸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고 싶고 그래; 마음은 굴뚝같지... 그러고 보면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생각은 들 것 같은데 모르지; 지나가는 이쁜 아줌마 보면 '아 저 여자 참 이쁘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아주 강하게 느끼고 말고. 그러니까 재혼을 생각했지. 매력을 느끼고 또 서로 만족스러우니까 더욱 결혼생각이 간절했던 것 같애.; 우리 마누라가 나이는 먹었지만 아직까지 나이에 비해 많이 안 늙었거든. 몸매도 벗겨놓고 보면 그래도 아직은 여자 몸매고;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 가끔 하고 싶고, 하고 그래; 마누라가 예쁜 것 하고 만지려고 하면 하고 싶은 거지 뭐. 항간엔 평생 지속이라잖아; 생각이야, 자주 들지. 거의 매일. 남자들이 젊은 여자들 벗고 다니는거 보면 '쫄쫄.. 저런 저런.' 하는게 사실은 비양심적인 거러니까; 몸만 건강하면 평생가는겨. 남자들은 다 그래; 지금도 놀고 싶은 건 아직도 있어. 하고 싶은 생각은 항상 있어. 지나가다가도 아무래도 얼골 이쁜 사람은 한번 더 보지; 한 78세 까지는 잘 자다가도 죽은 영감이랑 부부 관계할 때 나타나는 현상처럼 저 아랫부분이 막 오물락 조물락 거러기도 했어.내가 자다가 상상을 하고 그러면 그랬던 것 같아; 옛날에 죽은 영감이랑 했던 기억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생각이 나. 아마 죽을 때까지도 그때 그 좋았던 기억은 잊지 못하고 무덤까지 가지고 갈거야;
욕구의 억제/사회적 동념	이제는 참아야지. 그럼; 자식도 있고 손자도 있고 며느리도 있는데; 늙으면 하지 말아야지.; 원래 내 나이 정도면 참아야 해.; 욕구를 다 충족시키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흔하나? 욕구는 있어두 다들 참는거지; 늙으면 참을 줄도 알아야지;
/현실적 실행의 어려움	생각만 하면 뭘 해 실제로는 하지도 못하는 걸. 지금은 그런 욕구가 많이 약해져서 그런 생각이 들면 그냥 참아. 참다보면 욕구가 저절로 사라지거든.; 가끔은 관심도 가고 그러기는 하지만, 내가 안된다는 걸 아니까 생각을 안하려고 하지; 힘드니까 '나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 옛날에 임금이 50도 안되어 죽었는데, 궁녀들에게 기운을 다 빼서 그런거야; 내가 영감을 잃었을 때 그 쪽 생각은 아예 안하려고 마음 먹었지; 예전에도 그랬지만 남자들 있는 그런 자리에는 잘 가지도 않아;

3. 노인의 성적 욕구

현재 노인이 성적욕구를 느끼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욕구의 완전소실, 욕구의 감소와 욕구지속 및

욕구의 억제라는 4개의 주제군으로 범주화되었다.

1) 욕구의 완전소실

'지금은 아무 생각도 없고, 뭘 봐도 아무 느낌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좋은 느낌도 없

고, '생각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적자극에 대해서도 무감해진다. '웬만한 거 봐서는 흥분도 안되지' 라고 지각하고 이제는 '좋은 것도 모르는' 상태인 것이다. 과거와 비교해서 '하고 싶은 생각이 싸악 없어지고' '생각 자체가 안 난다' 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젠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이며 '별로 신경 쓰지도 않고. 그냥 있는 대로 사는 거지'의 상태이다.

이러한 진술은 성적욕구가 사망까지 지속되며, 성생활에 연령제한은 없다는 연구(Finkle, 1972)와는 상반된다. 이러한 욕구의 소실이 실제 현상인지 혹은 억제됨으로써 초래된 것인지 보다 명확히 구분해야할 필요가 있다.

2) 욕구감소

욕구의 감소를 진술하는 노인들은 외적자극이 있을 때나 반응하거나 가끔 욕구를 느끼지만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고 한다. 노인들은 욕구가 감소되어서 발기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혹은 발기가 안되기 때문에 포기해서 이젠 생각도 안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제는 욕구가 생기는 횟수까지 기억하게 될 정도로 현저한 욕구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3) 욕구의 지속

노인들은 변함없는 성적욕구를 가지고 있다. 비록 늙었지만 마음은 젊다고 생각하며 성적욕구는 팔십세 혹은 평생 지속되는 욕구라고 생각한다. 욕구의 강도나 빈도는 비록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지속하는 것이며 평생 가는 것으로 본다. 또한 발기가 안되거나 기력이 딸리거나 몸이 안 따라주어서 실제로 못하더라도 다들 성적욕구는 강하며 단지 자제를 하고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재혼을 생각하기도 하고, 죽은 배우자와의 상상을 통한 성 관계를 통해서 성적욕구를 해결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런 기억을 죽을 때까지도 잊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또한 아직도 젊은 여성이나 이쁜 여자를 보면 보기가 좋고 관심이 가고 청상파부들이 혼자 살기 힘들다고 동정하고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생각은 들 것 같다고 본다. 이러한 진술은 욕구가 실제 성 활동의 감소와는 무관하게 지속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는데 Pfeiffer 등

(1968)의 연구에서도 성교횟수와 성적관심의 역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욕구의 억제

일부는 욕구가 있어도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사회적 통념을 반영하거나 현실적으로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회적 통념을 반영하는 진술은 '자식도 있고 며느리도 있는데' '늙으면 하지 말아야지' '원래 내 나이 정도면 참아야 해' 와 같이 외부를 의식하거나 참아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욕구가 있어도 실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참거나 혹은 성생활이 건강에 해로우므로 참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기도 한다. 일부는 사별 후 생각을 아예 안 하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실행이 어려워져서 욕구를 억제한다는 진술은 '내가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생각을 안 하려고 하지' '힘드니까 '나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등이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내가 영감을 잃었을 때 그 쪽 생각은 아예 안 하려고 마음 먹었지' '남자들 있는 그런 자리에는 잘 가지도 않아' 와 같이 완전히 욕구 자체를 부인하거나 경계하기도 한다.

4. 성생활 장애요인

대상자 중 한 명의 여성노인만 원래부터 성생활을 기피하였다고 응답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노인들은 성생활에 변화 혹은 장애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성생활에 장애를 초래한 요인은 신체적 요인, 심리적, 사회적 요인으로 범주화되고 신체적 요인으로는 발기의 변화인 발기부전, 발기 지속시간의 감소와 재발기를 위한 시간증가, 체력의 감소, 질 분비물 감소, 건강악화라는 6개 주제군으로 조직되며, 심리적 요인은 자신감 감소 및 여성노인의 관심감소의 2개 주제군으로 조직되었다. 사회적 요인에서는 성 파트너의 부재, 주변인식, 생활여건의 3개 주제군이 나타났다.

1) 신체적 요인

(1) 발기부전

신체적 요인에서의 발기부전과 관련한 진술로는 '발기가 잘 안돼' 는 현상을 지적하고 있고, 발기가

되더라도 '시원찮고'라고 호소한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와 비해서 매우 현저한 변화이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그게 꼬챙이 같이 섰었는데' 이제는 '바들바들 떨리고' '자꾸 꺾여서 다칠 때도 있으니까'라고 비교한다. 그러한 변화로 인해 노인들은 '좀 일부러 세웠다 하기도' 하는 것이다.

(2) 발기지속시간 감소

노인들은 성생활의 변화를 초래한 요인으로 발기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한다. 즉 '딱딱한 게 오래 지속되지도 않고' '조루증 증세도 있는 것 같구' '넣으려고 하면 힘이 그냥 빠져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발기지속 시간의 변화는 결국 부부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이 된다. 즉, '오래 못해' 주고 '더 짧게 놓고' 부부생활에서 '하다 말고 그러지'와 같은 장애가 나타나고 결국에는 노인 스스로 '몇번 그러구나니까 이제 안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3) 재발기 시간 증가

재발기 시간 증가로 인한 장애는 '금방 또 못하겠고' '한 번 하고 나면 며칠 썩 못허고'의 내용이다. 이러한 진술은 관련문헌(이희영, 1983)에서 노령에서는 발기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발기시의 복벽과의 각도나 발기지속 상태가 저하되며 성교능력 회복시간이 12-24시간으로 증가된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4) 체력의 감소

체력 감소는 노인의 성적 욕구를 실현시키는데 필요한 체력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다. '늙어서 자주 하구 싶어두' 못하게 되고, 자신이 여태껏 적정히 유지해 온 성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생각하고 몸이 따로 놀아' '생각을 하면 하고 싶지만, 그냥 생각만 굴뚝' 같게 되는 것이다. 이는 '시장에 가서 과일은 먹고 싶은데, 돈이 없는거랑' 똑같은 현상이다. 체력의 감소는 성생활 빈도를 감소시키거나 중단을 초래하고 결국 노인 스스로 성적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장애요인으로 되는 것이다. 이러한 체력감소에 대한 호소는 더 나아가 '내 몸이 힘이 드니까 자꾸 마음을 쓰지 말아야지' 라는 심리적 장애까지 초래하게 되는 것

이다. 그러나 이희영(1983)은 성행위에 소모되는 에너지나 체력은 과대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어, 노인들 스스로가 성에 대한 비이성적인 공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여성노인의 질 분비물 감소

여성노인의 질 분비물 감소로 인한 성교 시 통증 역시 신체적 장애요인의 하나로 지적되었다. 즉 질분비물의 감소는 '뾰뾰뾰뾰해서 아프다'거나 '뻑뻑하고 아퍼요' 라는 호소를 하게 하고 '들어가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거나' '잘 만나와서 관계를 가질 때 느낌이 별로 좋지 않다' 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결국 '눌 때 아파'하게 되고 '재미가 없어' 지게 됨으로써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여성에서의 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변화로 질분비물의 감소는 문헌에서 지적된다(Masters, Johnsons, 1970; Rutherford, 1965; 이희영, 김승려, 1972).

(6) 건강

건강문제는 '기운도 딸리고 아픈 데도 많고' '몸이 마르구 약해서' '자꾸 아프고 기운도 없고' 등 일반적 불편감부터 '관절염에다가 당뇨' '허리 디스크 수술' '쓰러진 후' '혈압이 높고' '심장하고 기관지'와 같은 특정 문제로 인한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건강을 장애요인으로 지적한 진술문의 수는 비교적 적어서 성에 대한 건강의 영향은 의외로 적을 수 있으며 흔히 건강의 영향이 과대평가된다(Fookan, 1993)는 것을 보여준다.

2) 심리적요인

성생활장애의 심리적 요인으로서는 자신감 감소와 여성노인의 관심 감소 2개의 주제로 나뉘어질 수 있었다. 남성노인의 성적욕구 감소는 장애요인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남성노인은 욕구가 감소되었다고 자신이 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남성의 성적욕구 감소는 성생활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한편 욕구의 완전 소실로 성생활이 중단된 경우는 앞서의 성적욕구의 변화항목과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여성노인의 진술상 남성노인의 관심소실이 장애요인으로 언급되지 않은 반면 남성노인의

<표 3> 성생활의 변화요인

범주	주제	부주제	의미있는 진술
발기관련 변화	발기부전; 발기지속시 간의 감소	발기부전;	발기가 잘 안돼; 발기되는 것도 시원찮고; 우선 발기가 안되니까 그렇지. 그게 안되니까 소용 없어; 잘 안 서더라니까; 힘들어 그거 설려면. 그래서 좀 일부터 세웠다 하기도 해; 젊었을 때 는 그게 꼬챙이 같이 손다 그랬거든. 근디 이제는 서로 바들바들 떨리고; 거시기도 힘이 없어 가지고 자꾸 꺾여서 다칠 때도 있으니까.
		재발기 시간증가	한번 하고 나면 며칠 썩 못하고 그러는디; 힘이 아무래도 딸리고 금방 또 못하겠어.
		체력의 감소	생각하고 몸이 따로 놀아; 생각을 하면 하고 싶지만, 그냥 생각만 굴뚝같지. 몸이 안 따르는데; 몸뚱이가 말을 안 듣지. 시장에 가서 과일은 먹고 싶은데, 돈이 없는거랑 똑같지; 사실은 힘이 없어. 일혼 일곱이면 그럴 만도 하지; 늙으면 기계가 말 안듣는 것처럼 몸이 말을 안듣는다니 까; 이젠 힘들고; 늙어서 자주 하구 싶어두 못하지. 몸이 따라주남. ; 한 달에 2-3번은 하는데, 더 해야겠지만, 힘들어서 더는 무리인 거 같아; 나도 점점 힘이 들어지고, 그러니까 힘이 안 들어가지. 기운도 딸리고, 오래가지도 않고; 갑자기 힘든걸 느끼고 그때부터 줄었어; 이제 내가 체력이 안되니까 딱 끊겼지; 하루하루 기력이 달려서 요즘은 전혀 못 해; 내 몸이 힘이 드니까 자꾸 마음을 쓰지 말아야지 하지;
신체적 요인	절분비물 감소	아래로 물이 안나와서 잠자리도 못해; 아래로 물이 안나와서 뽀뽀뽀해서 아프다; 좀 하다보 면 아프고 힘들지. 뻑뻑하고 아퍼요; 관계를 가질 때 분비물도 잘 안나와서 관계를 가질 때 느 낌이 별로 좋지 않고 아프기도 했어; 웬지 하면서도 뻑뻑한 것 같고 그래; 들어가는 것 자체 도 쉽지가 않아; 물 같은 것도 안나오는데 살인데 안 아프겠어?; 늘 때 할머니가 아파하니까 그렇게 절로 됐지; 사람이 늙으면 물이 안나오거든. 호르몬인가도 안나오고. 피도 안나오고. 그래서 재미가 없지; 뻑뻑해서 고무나무에 하는 것 같다고 재미없다고 그러지	
		건강	늙으면 기운도 딸리고 아픈 데도 많고; 몸이 마르구 약해선지 별루 원하질 않더라구; 우리 영 감도 몸도 좀 안 좋았지. 관절염에다가 당뇨도 있었어; 1년 전에 허리 디스크 수술했는데, 그 때부터 허리에 힘이 들어가는 일은 잘 못해; 할아버지가 그렇게 쓰러진 후지. 뭐. 그렇게 있 는데 뭘 해. 손.발도 못쓰고 말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고 그렇게 누워만 있어; 혈압이 높고 그러니까 신경쓰고 그러느라고 그런거 별로 모르고 살았지; 할망구가 매일 몸 아프다고 그러 고 안해조; 하기 싫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 나도 심상하고 기관지 건강이 안 좋아서 매일 약 먹고 할머니도 매일 어디가 아프다 그러고;몸도 성치 않으니까 안하게 되더라구; 나이 도 먹고 다리가 아프니까 더 하기 싫어. 귀찮지; 할멈도 아프고 그러니까; 왜냐면 몸이 자꾸 아프고 기운도 없고, 그러니까 무관심해지는 거지. 딱 게 있나.
		자신감의 감소	하다가 실패하면 마누라가 싫어할 것 같기도 하고; 자신있는 날만 하게 되지; 욕구는 있지만 실패할까 봐 두렵기도 해; 자신도 많이 없어지고
심리적 요인	여성노인의 관심 감소	나는 싫은데 영감이 늙어서도 그런 건 남아가지고 자꾸 건드려서; 월경 끊어지고 나서는 집 사람이 싫어해서 지금은 가끔 할려고 해도 우리 마누라는 이 나이에 남사스럽게 왜 그러냐고 자꾸 안할려고 한다니까; 경도 가 끊기니까 싫어하드라구; 내가 원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왔었는데; 할머니가 그걸 왜하냐고 자꾸 그러잖아. 관심이 없어; 영감이 만지기만 해도 귀 찮은 거야; 생리가 끝나니까 생각도 안나고; 이제는 그런 생각도 안듣고; 집 사람도 나이 먹 으면서 부부관계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 할머니가 그런 생각을 안해. 그걸 왜하냐고 자꾸 그러잖아. 관심없어; 마누라가 싫어해. 내가 일방적으로 할 때가 많지. 마누라가 다 늙어서 주 책이라고 해; 나만 원한다구 해서 할 수도 없구.	
		사회적 요인	마음을 쓰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참고. 그러다 보니까 안하게 되는 거지; 이제는 통 못 하고 있어. 그 사람이 먼저 가는 바람에 그렇게 됐지; 집에 꾸렁탱이라고 한 명 딱-하니 앉아 있으면 그래도 좀 하겠지만 나 같이 혼자 사는 노인네들은 자주 할 여건이 안되지; 하구 싶어 두 자주는 못하겠더라구. 마누라가 죽구 나선 자주 안하니까 더 한거 같어;

		<p>이렇다하게 성 관계를 가질 여자두 없으니 더 소극적으로 되가는 것 같구; 지금은 그런 생활한지 하도 오래돼서 말이야; 성생활을 자주 안 해서 그런 것두 같구; 남편이 있는 사람들은 허고 싶으면 허지만, 남편이 없는 사람들은 못허잖여; 영감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전 허고 싶어도 못 허는 거지; 지금은 영감이 없어서 허고 싶어도 못허지만; 내가 50에 혼자됐는데 처음엔 생각도 안 하려고 했어; 마누라 죽은 다음에 한동안 뜸하; 나야 마누라가 없으니 할 상대가 없어서 그렇구; 관계를 갖을 만큼 사랑하는 여자가 없기 때문이여; 마누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전 할 아버지도 없고 그렇다고 할아버지를 대신할 사람도 없으니까; 형편 때문에 제가를 못하면 참고 살아야지; 혼자 살면서는 그쪽 생각은 안해야겠다고 생각했지</p>
사회적요인	사회적 인식	<p>자식들도 생각해야지; 애들 눈치도 있구; 게다가 자식들도 있어 눈치보게 되고; 자식들 보기도 민망스러워. 때가 되면 다 참아야 하는 거지; 자위행위도 자주 안하게 되지 자식들이 알까봐 그러는 것두 있어; 그런 거 밝히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니까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지; 돈주고 하는데 가도 나이 먹었다고 이상하게 쳐다보기도 해; 나이들어 망신살 뻗치는 거지; 자식들 보기두 민망하구;</p>
	기타 주변 여건	<p>우리 아들이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지 뭐야. 충격이 컸지. 아마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거야; 영감죽었을 때 사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우리 둘이 살아도 낮 시간에는 애들 보느라고 힘들었으니까 좋아 떨어지고 힘도 없어서 그렇지 뭐; 생각만큼 다 못하지.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여자두 없지만; 재혼하게 되면 신경을 써야하구; 이 나이에 재혼은 생각할 수도 없는 거구; 지금은 할아버지와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고; 자식들보다 맘 맞는 할아버지가 나타나면 요새 사람들 만나는 것처럼 테이트도 하겠지만, 쉽지 않지.</p>

진술에서는 여성노인의 관심감소가 빈번하게 언급되므로 주제군으로 분류하게 되었다.

(1) 자신감의 감소

자신감의 감소는 남성노인의 진술에서 나타났으며 이는 신체적 범주에서의 발기관련 변화와 관련이 있었다. 즉 '하다가 실패하면 마누라가 싫어할 것 같기도 하고' '욕구는 있지만 실패할까봐 두렵기도 해'저서 이제는 '자신있는 날만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자신감 혹은 수행에 대한 불안감이 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임은 Ebersole과 Hess(1990)에서와 일치한다. 연령에 따른 신체변화에 대한 지식부족도 노인에서의 좌절감과 공포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상투적인 사고를 쉽게 받아들이게 한다.

(2) 여성노인의 관심 감소

여성노인은 특히 폐경 이후 성적관심이 두드러지게 감소하게 되고, 성생활을 기피하게 됨으로써 성생활의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 그로 인해 남성노인이 '일방적으로 할 때가' 많게되고, 혹은 상대방이 원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 간다고 진술한다. 이희영(1983)은 여성의 48%에서 폐경기 중후군으로 성기능 감퇴현상이 초래로 갱년기 중후군을 극복하는데는 성기능의 부활에 중점을 두

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노인의 성적활동 지속을 위해서는 파트너의 성에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조건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3) 사회적 환경

노인성생활의 사회적 장애요인은 사별함으로써 성적 파트너가 없거나 주변을 의식하거나 혹은 기타 주변 여건의 3개 주제군으로 나타났다.

(1) 성파트너가 없음

이는 사별을 통해 상대방이 없음으로써 초래되는 요인이다. 사별로 인해 홀로 된 노인들은 실제로 정상적인 성생활을 못하게 됨으로써 성적기능이 퇴화되거나 소극적이 되고 성적욕구를 억제하게 됨으로써 정상적인 성생활의 변화가 초래된다. '마음을 쓰지말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참고' '혼자 살면서는 그쪽 생각은 안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라는 진술은 사별 후 성적욕구를 억제하려고 노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사별로 인해 '성 관계를 가질 여자두 없으니 더 소극적으로 되가는 것 같구' 같이 성생활은 변화하게 된다.

성 파트너가 성생활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Dean(1974) 역시 지적하고 있다. 그는 생리적인 요소보다는 심리-사회적인 요인이 성활동 감소

요인이라고 보았으며 특히 노인여성에서는 거의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Pfeiffer et al., 1968).

(2) 사회적 인식

주변의 사회적 인식 역시 적극적인 성생활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자식들도 생각해야지' '애들 눈치도 있구' 등의 진술은 특히 자식들을 의식하는 것이 가장 빈번한 점을 점을 보여준다. 일반적인 사회의 인식도 역시 노인의 성적욕구를 드러내는 것을 방해한다. '그런 거 밝히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니까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 스스로 성적욕구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 '나 이들어 망신살 뺏치는 거지'로 평가하고 '때가 되면 다 참아야 하는 거지'라고 생각한다.

(3) 생활여건

그 외에 다양한 생활여건 들이 노인의 정상적인 성생활을 방해하게 된다. '낮 시간에는 애들 보느라고 힘들었으니까 꿈아 떨어지고' '영감 죽었을 때 사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등은 생활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고, 성파트너가 없는 경우도 있다. 성파트너가 있는 경우일지라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재혼 의사가 있더라도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 '생각만큼 다 못하지.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재혼하게 되면 신경을 써야하구' 등의 진술이 그것이다.

5. 변화에 대한 느낌

다양한 요인들이 노인이 정상적인 성생활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러한 성적활동의 변화에 대한 노인들의 반응은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로 구분된다.

1) 긍정적 태도

긍정적 태도는 순응, 대체의 2개 주제군으로 나타난다.

(1) 순응

순응하는 태도는 성적변화를 자연스러운 자연의 이치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제는 늙었고 모든게 변화하는 가운데 하나로서 받아들인다. 이는 '늙었

으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거지'라는 진술로서 나타나고 변화에 대해 '별 느낌이 없다' 거나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다'라는 반응을 유도한다. 결국은 성적 변화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초래된' 것이고 '이젠 지금과 같은 성 생활이 자연스러워'진 것이다.

이런 변화는 사별한 경우 오히려 안도감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해결방안도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곤란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게 편해' 라고 성적욕구가 소실된 것에 대해 편안해 하는 것이다.

(2) 대체

대체는 다른 생활에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현재의 성생활의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됨을 보여준다. 즉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이런 정 저런 정으로 들어서 오손도 손 살아', '손주들도 보고 다른 기쁨이 항상 있으니 까'라는 진술은 그러한 대체로서 표현된 긍정감을 보여준다.

2) 부정적

부정적인 태도는 우울감, 체념, 관계장애의 3개 주제군으로 나타난다.

(1) 우울감

성생활 변화는 속상하고 서운함을 초래한다. 변화가 늙는다는 사실과 젊고 좋은 날이 다 갔다는 것, 결국은 죽음이 가까워 왔다는 사실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울감은 '자꾸 갈 때가 되어서 그렇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늙었다는 생각에 우울하더라구' 등의 진술로서 표현된다.

(2) 체념

체념은 부정적인 감정과 부족감을 느끼면서도 달리 해결 방법을 모색하지 못하면서 현실을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태도를 지칭한다. 체념적인 태도는 더 나아가 전반적인 삶에 대해서도 부정감을 드러낸다. 이러한 태도는 '섭섭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찌겠어. 달리 방법이 없는데 그냥 지내야지' 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체념은 '이제는 갈 날만 기다리는 거지. 뭐. 이제는 그런 거에 관심도 없다' 거나 '이젠 그런 것 두 귀찮어. 죽을 날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등의 삶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표 4> 성적활동의 변화에 대한 정서 반응

범주	주제	의미있는 진술
긍정적	순응	우리 나이가 되면 다 그런거지; 늙었으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거지; 자연스러운 거라구 생각하니까 별 느낌이 없어. 크게 신경쓰지는 않아; 갈 때가 돼서 그렇다 생각이 들지, 속상하거나 그런 거 없어; 젊었을 때 처럼 그런 능력이 지속된다면야 좋겠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변화하는 것 중에 한가지라고 생각하지;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해; 생각은 있는데 못하니까 서운하지. 젊었을 때가 그리워. 하지만 늙어서 그런건데. 당연하게 생각해야지; 어찌겠어. 나이 먹으면 원래 이룬 능력이 다 점점 떨어지잖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지. 나라고 별 수 있겠어? ; 나이가 들어가면서 변하는 거 중 한가지라고 생각하지.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해; 그냥 자연스러운 거지. 늙으면 모든 게 변하니;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 이전 지금과 같은 성생활이 자연스러워; 다들 그렇다는 말을 듣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런 생각이 안들더라구; 이전 육체적 관계에 대해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늙어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팔팔한 노인네들이 많아. 그런건 참 부럽지. 그러나 개인 차이지; 지금까지 그런 생각이 들면 어찌겠어. 영감도 없는 디 해결할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자식들 부끄럽게 시집갈 수도 없는 거구. 차라리 이게 편해;
	대체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이런 정 저런 정으로 들어서 오손도손 살아; 손주들도 보고 다른 기쁨이 항상 있으니까; 이제 그만 해야지 다 늙어서 뭘 바라겠어. 그게 다는 아니니깐 지금은
부정적	우울감	기분이 좋지 않을 때가 있지; 자꾸 갈 때가 되서 그렇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속상하지; 가끔 할려고 할 때는 좀 속상하지. 하는 것 보다는 할려고 시작하는데 힘을 더 빼니까 말이야; 힘들어서 자꾸 못하고 횡수가 주니까 이루 말할 수 없지.. 서운하지; 마음은 청춘인데, 몸 때문에 잘 못하니까, 싫다 뿐이야. 죽을 맛이지; 횡수가 많이 줄었지, 자연 스러운 노화현상이지만,, 슬프지. 늙는데 안슬픈 사람이 어디 있겠어?; 좋고 그런 걸 모르니까, 기분은 우울하고 안 좋지. 계속 유지 됐으면 더 좋았을텐데; 내가 늙었다는 생각에 우울하더라구. 이제 죽을 날 멀지 않았구나 허는 생각도 들고; 섭섭하지. 조금이라도 젊고 할 수 있었을 때 자주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어. 지금 이 나이쯤 되니까 아쉬워. 좋은 시절을 혼자 보낸게 억울하기도 하고; 가끔 하는데 그럴 때는 좀 속상하지. 하는 것 보다는 할려고 시작하는데 힘을 더 빼니까 말이야; 서운하다 뿐이야? . 이루 말할 수 없지; 자신이 늙었다는 표시인데 누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 내가 건강하지 못한 것이 속이 상하지; 늙어서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가 보다하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늙는다는 생각이 들어 우울하기도 해; 힘도 없으면서 욕구는 있고.. 그래서 나도 힘들어.
	체념	부부관계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못하면 좀 섭섭하기도 해. 그래도 어찌겠어. 달리 방법이 없는데 그냥 지내야지; 처음에는 속상하기도 하고, 내 나이도 많이 먹었나 보다했지만 늙어서 그런걸 어떡해; 이제는 갈 날만 기다리는 거지. 뭐. 이제는 그런 거에 관심도 없다. 그냥 병 걸리지 않고 살만큼 살다가 갔으면 좋겠어; 나는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아. 이제 그런 것 두 귀찮아. 죽을 날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이 무슨 생각이 있어. 남은 날이나 열심히 살다 가야지. 늙으면 다 그런 거겠지; 처음엔 기분이 나빴지만, 지금은 나도 몰라; 형편 때문에 재가를 못하면 참고 살아야지. 스스로한테는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 어떤 사람은 86세 된 이가 아직도 하더라구. 그런 거 보면 부럽기도 하지. 그렇지만 어찌겠어. 그냥 살아야지;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 사는데 지장은 없는데 뭘.
	관계 장애	가끔은 실패해서 민망할 때도 있고, 아내도 민망해 하는 눈치고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했었지; 할머니도 건강하지 못하고.. 할머니가 자꾸 싫어하니까 기분이 나쁘지; 내가 나이가 드는구나 생각되는데 그게 좋았겠어? . 그 때 마누라라고 좀 다했지; 잘 안되면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지;

도 연결되어 있다.

(3) 관계 장애

관계장애는 부정감이 상대방과의 관계 때문에 야기되는 경우를 보여준다. 변화 자체보다도 그로 인해 배우자에게 민망하거나 자존심도 상하게 되고 혹은 배우자가 성생활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기분이 나빠지는 것이다. 즉 '아내도 민망해 하는 눈치고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며 '마누라라고 좀 다투기도' 한다. '잘 안되면 자존심도' 상하게

된다. 자존감이 성적관계에 영향요인임은 Stimson, Wase와 Stimson(1981)의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6. 노년기의 성생활에 대한 상담 필요성

노년기의 성생활에 대한 상담에 대해서는 부정과 회의적 태도 및 긍정적 태도로 구분된다.

1) 필요성 부정

<표 5> 성 상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범주	주제	의미있는 진술
필요성 부정		예전에는 몰라도 이전 궁금할 것도 없는 나이야; 궁금한 게 뭐 있어. 궁금할 때는 다 넘어 갔는데; 이전 다 소용없고 부질없는 일이야. 이제 너무 늙었어; 늙어서 그런 걸 누구한테 물어보겠어; 알 거 다 알아서 궁금한 것도 없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살다 죽는 거죠; 처음 병에 걸렸을 때는 모르지만; 고맙기는 하지만 다 옛날 일이지.
회의적		누가 답이나 해줄 수 있겠어; 그런 걸 어디서 해 주잔.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근데 그런 걸 다 늙어서 누구한테 이야기한다는 게 그렇지; 병원에 가도 일하는 것들이 다 그렇고; 그런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 늙은이가 주책이라고나 하고 징그럽다는 소리나 들게되고; 나이를 먹다보니, 다들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 근데 우리를 상대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누구에게 물어보고 싶어도 나이 들어서 주책이라고 할까봐 그렇게 못 하지. 물어볼 마땅한 곳도 없고 말이야
필요성 인식	과거경험에 기초한 필요성 회상	내가 갑자기 그게 안 되서 걱정을 많이 했었지. 한방병원에 가서 상담도 하고 약도 지어먹고 도움이 되었지; 내 친구 중에는 발기가 안되서 고민하다가 병원까지 간 친구가 있었지; 이런 얘기는 누구랑 해 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으니; 노인정 가면 그런 이야기하기도 하지. 이야기하다보면 궁금한 게 풀리기도 하고 그러지; 이 전에 영감이 정력이 자꾸 떨어진다고 해서 그런 거나 알아봤으면 한 적은 있다
필요성 인식	필요성 인정	상담은 필요하다고 본다구; 상담을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허내; 왜 그런 이야기는 남하고 못하는 거잖아; 전문가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팬실히 마음에 걱정 안 들고 좋을 거 같네; 궁금한 게 있기는 하지; 난 친구도 많지만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할망구들이 있나? 다 주책이라고 할테지; 요즘에 무슨 많은 기구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있나;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는 곳이 있다면야 좋겠지;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이 되겠지; 노인정에 가서 이야기하더라도, 그래도 상담이 필요할 수 있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필요성을 부정하는 노인들은 성에 대한 문제는 누구라도 답해 줄 수 없는 문제이고, 과거에는 궁금한 점이 있었지만 이제는 궁금할 것도 없고, 그런 이야기가 필요하지도 않을 정도로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제 너무 늙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살다 죽는 거라는 생각이다.

2) 회의적

회의적인 태도는 성 상담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주변에서의 인식이나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먼저 문제 삼고 있다. 즉 그런 문제는 물어보는 것도 어렵지만 누가 답을 해줄 수도 없고, 오히려 물어보는 측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누가 답이나 해줄 수 있겠어' '그런 걸 어디서 해 주잔' 등의 진술은 노인들 스스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어려워함을 보이는 한편 '병원에 가도 일하는 것들이 다 그렇고' '그런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 늙은이가 주책이라고나 하고 징그럽다는 소리나 들게되고' '우리를 상대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라는 진술은 주변의 인식과 여건에 대해서도 노인들이 신뢰를 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3) 필요성 인식

(1) 과거경험에 기초한 필요성 회상

성 상담의 필요성은 주로 과거 경험에 기초하여 인식된다. 노인 스스로의 경험 혹은 주변에서의 경험, 상호간의 정보교환에 대한 경험을 통해 성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2) 필요성 인정

적극적으로 성 상담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성적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대도 없을 뿐더러,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도 아니며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의 성생활의 의미와 성적욕구 정도 및 성생활 변화의 요인은 파악하고, 노인의 성 상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의 틀은 개방형 질문지를 이용한 서술적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지역

에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 26명이며 자료수집기간은 1998년 4월부터 6월까지였다. 자료수집방법은 면담을 통해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는 남자 16명 여자 9명이며 평균연령은 73.3세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는 19명이었다.

1) 노인들에서의 성생활은 의무감, 친밀감, 욕구 충족, 의미의 감소, 중요성 없음의 5개 군으로 범주화되었다.

2) 노인의 성적 욕구

노인의 성적욕구는 완전소실, 감소, 욕구지속 및 욕구의 억제라는 4개의 주제군으로 범주화되었다. 욕구의 억제는 사회적인 통념에 의하거나 혹은 현실적인 실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3) 성생활 장애요인

노인의 성생활에 장애를 초래한 요인은 신체적 요인, 심리적, 사회적 요인으로 범주화되었으며 신체적 요인으로는 발기의 변화인 발기부전, 발기 지속 시간의 감소와 재발기를 위한 시간증가, 체력의 감소, 질 분비물 감소, 건강악화가 진술되었다. 심리적 요인은 자신감 감소 및 여성노인의 관심감소, 사회적 요인에서는 성 파트너의 부재, 주변인식, 생활여건의 3개 요인이 진술되었다.

4) 변화에 대한 느낌

성적활동의 변화에 대한 노인들의 반응은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로 구분된다. 긍정적인 태도는 순응과 대체, 부정적 태도는 우울감, 체념, 관계 장애의 주제군으로 나타났다.

5) 노년기의 성생활에 대한 상담 필요성

노년기의 성생활에 대한 상담에 대해서는 부정적 회의적 태도 및 긍정적 태도로 구분된다.

이상으로 지역사회 노인이 성생활에 부여하는 의미, 성적욕구의 정도, 성생활 장애요인, 성생활 변화에 대한 정서적 반응, 성상담에 대한 필요성 인식을 조사하였다. 진술의 빈도면에서 보면 대부분의 진술은 성생활을 중요하게 여기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성적욕구 또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노인이 성생활에 있어 장애요인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장애요인은 노인의 성

생활을 변화시키고 그럼으로써 우울과 체념, 관계 장애 등의 부정감을 초래하고 있었다. 그 결과 노인들은 성상담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론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한다.

1) 성적욕구가 감소되거나 소실된 경우 그 원인이 생리적인 것에 기인하는지 규명해야 할 것이다.

2) 노인의 성생활 장애요인에 대한 보다 상세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기초로 생리적 성적 변화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문제점에 대처하는 방법을 고안해야 할 것이고 동시에 심리, 사회적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노인의 성생활에 대한 성상담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생리적 노화에 따른 성기능의 변화에 대해 명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교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Brown, L.(1989). Is there sexual freedom for our aging population in long-term care institutions?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13:75-90
- Butler, R. & Lewis, M.(1976). *Sex after sixty*. New York: Harper & Row
- Calderone, M.(1976). *Sexual health*. In Lief, H., and Karlen, A.(eds), *Sex Education in Medicine*. Spectrum, New York
- Comfort, Alex(1974). *Sexuality in old age*. *J Am Geriatr Soc*, 22:440-442
- Finkel, A.L.(1972). *Urologic counseling in male sexual impotence*, *Geriatrics* 27:67-72, Dec
- Dean, R.T.(1977). *The effect of formalized sex instruction of the state-anxiety level and the level of misinformation regarding puberty in the adolescent girl*. Thesis,

- Adlphi University
- Fooker, I.(1982). Sexuality in later years—the impact of health and body-image in a sample of older women.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ing*, 23:227-233
- Freeman, J.T.(1961). Sexual capacities in the aging male. *Geriatrics*, 16:37-43
- Kaas, M.J.(1981). Geriatric sexuality breakdown syndrome. *International J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3:71-77
- Kinsey, A.C., Pomeroy, W.B., Martin, C.E. (1984). *Sexual Behavior in the Human Male*. Philadelphia, W.B Saunders
- Masters, W.E. & Johnson, V.E.(1966). *Human Sexual Response*. Little Brown, Boston, MA
- Nay, R.(1992). Sexuality and aged women in Nursing Homes. *Geriatric Nursing*, Nov/Dec; 312-314
- Newman, G. & Nichols, C.R.(1960). Sexual activities and attitudes in older persons. *J. Am. Med. Assoc.* 173:33-35
- Pfeiffer, E., Verwoerd, A. & Wang, H.(1968). Sexual behavior in aged men and women. *Arch. Gen. Psychiat*, 19:753-758
- Selickman, M.A.(1971). medical care in a facility for the healthy aged. *Geriatrics*, 26:107-117
- Wasow, M., Loeb, M.B.(1979). Sexuality in Nursing Homes,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27(2):73-79
- Verwoerd, A., Pfeiffer, E. & Wang, H.(1968). Patterns of sexual activity and interest. *Geriatrics*, 24:137-154
- Weinberg, J.S.(1982). Human Sexuality and Spinal Cord Injury. *Nursing Clinics of North America*, 17(3):407-419
- 송미순, 김신미, 오진주(1997). *노인간호연구와 전망*.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희영(1983). *노인과 성-한국의 노인복지-*. 대우아산복지재단
- 이희영, 김승려(1972). Impotence에 관한 임상적 연구. *대한의협지*, 15:11

= ABSTRACT=

A study on sexual experiences and behaviors of aged in community

Jin Joo Oh (Dept. of Nursing, Dankook University)

This study aimed at comprehending the meaning of sexual life for aged people, their strength of sexual desire and causes of change in their sexual life. It was another purpose to understand the extent of aged people's acknowledging the necessity of sexual consultation. This study adopted descriptive method using open-ended questionnaires. The data for study was collected from 26 people over 65 years who reside in communities. It was gathered from April to June of 1998 through interview. The interviewee includes 16 males, 9 females and their average age was 73.3. 19 people among them have spouse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Attitude to sexual life:

The meaning of sexual life for aged people is categorized as 'sense of duty', 'feeling of intimacy', 'basic desire', 'decrease of meaning' and 'meaningless'.

2) Sexual desire:

Sexual desire of aged people is categorized as 'extinction', 'decrease', 'continuation' and 'restraint'. Restraint of sexual desire is due to social convention or the difficulty in fulfilling desire.

3) Causes of troubles in sexual life

Causes which lead to troubles in sexual life of aged people can be categorized as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Physical' elements include 'incompetence of erection', 'decrease in duration of erection', 'increase in time needed to re-erection', 'declining of physical strength', 'decrease in vagina secretion' and 'worsening of health'. Among 'psychological' elements 'decrease of self-confidence', 'diminished concern of female aged people' are. 'Social elements' are 'absence of sexual partner', 'circumstances of living' and 'recognition of neighbor'.

4) Response to change of sexual life

The reaction of aged people to change of sexual activities is classified as 'positive' and 'negative'.

5) Attitude to the consultation of sexual life of aged people

The attitude to the consultation of sexual life in old age is classified as 'negative', 'doubtful' and 'positive'.

This study explored the meaning which aged people in community attach to sexual life, the extent of their sexual desire, the causes of troubles in their sexual life, their emotional response to changes in sexual life, their recognition of necessity in sexual consultation. Considering the frequency of the statement, most of aged people who were interviewed thought much of sexual life and put emphasis on it. Those who said that sexual life has decreased meaning or is not important to them are few. Though aged people still maintain sexual desire, most of them have some trouble in sexual life. These trouble changes the sexual life, and results in negative feeling such as depression, renunciation and difficulty in relations. So they acknowledged that sexual consultation is necessary to them.